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

공원조성과장	박 미 애	2133-2050
공원구역팀장	유 혜 미	2133-2082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7매

## 서울시, 도시공원 등산로 등 사유지 33만㎡ 매입...‘정원도시 서울’ 연계한 숲정원도 조성

- 지난해 전국 최초 사유지 매입 대상지 공개 모집...등산로·둘레길 등 6.3km<sup>2</sup> 2030년까지 우선 매수
- 올해 829억 원 투입, 28개 공원구역 내 등산로 20만 5000m<sup>2</sup> 매입...작년보다 60% 규모↑
- 매입 완료한 등산로 내 일부 구간엔 계절별 꽃 식재...명일도시공원 등 4개소 조성

-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 내 등산로, 둘레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등산로, 둘레길을 우선 매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, 일부 매입지는 ‘정원도시 서울’과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한다.
- 서울시는 ‘도시자연공원구역’ 내 사유지 매입대상지를 공개모집하고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까지 약 33만 m<sup>2</sup>를 사들일 계획이다.
  - 도시자연공원구역은 ‘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’ 시행(’20. 7. 1)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,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, 총 69.2km<sup>2</sup>(사유지 36.7km<sup>2</sup>)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.

-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, 협의매수<sup>1)</sup>하는 방식으로 ‘도시자연공원구역’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.
-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3년 매입대상지 28개 공원구역 내 108필지(20만 5000 $m^2$ )를 선정했고 829억 원을 들여 해당 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. 이는 작년 매수 필지보다 67필지(7만 7000 $m^2$ ), 약 60% 이상 늘어난 규모다.
  - 시는 공개모집 이후 자치구·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필지를 선정해오고 있다.
  - 시는 지난해 12만 8000 $m^2$ , 약 8km에 해당하는 숲길을 확보했으며, 사유지 중 시민 이용이 많은 등산로·둘레길 등 6.3 $km^2$ 를 연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.

**※ 2023년 ‘도시자연공원구역’ 내 사유지 매수 추진개요**

- 소요예산 : 829억 원
- 규 모 : 28개 공원구역 내 사유지 108필지(20만 5000 $m^2$ , 축구장 28개 크기)
- 추진방법 : 사업대상지(108필지) 매수, 매수 후 잔여 예산 발생 시,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지 순차 매수
- 추진실적 : 토지분할 시행 및 감정평가 시행 중

- 2024년도 협의매수 대상지는 지난 5~6월 한 달간 공개 모집했다. 올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평가·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매수대상 토지를 확정해나갈 계획이다.

1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.

※ 2024년 '도시자연공원구역' 내 사유지 매수 공모개요

- 공 고 명 :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 
(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1300호)
- 공모대상 :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
- 공모기간 : 2023.5.4.~6.7. ※ 공고일 이후 수시 접수분은 '25년 매수 평가대상임
- 평가기준 : 토지의 기능성, 접근성, 토지 소유기간, 협의매수 가능성 등

-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, 둘레길 등을 분할 매입할 예정이다. 올 상반기에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한 만큼,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.

< 매입한 등산로 '정원도시 서울'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...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소 시작으로 점차 확대 >

- 한편,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입한 등산로를 지난 5월 발표한 「정원도시, 서울」 과도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- '정원도시, 서울'은 '비움', '연결', '생태', '감성'이라는 4가지 핵심전략을 통해 도심 속 회색 구조물을 비우는 데 속도를 내고,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,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만들고, 서울의 공원과 여유부지를 찾아 감성있는 정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.
- 시민이 자주 이용하지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등으로 목계단 하나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던 기존 산책로 및 배수로를 안전하게 정비하고 계절별 꽃을 식재해 숲 속 정원으로 탈바꿈한다. 올해 강동구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.

- 올해 사업 대상지는 강동구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, 도봉구 초안산도시자연공원구역, 서초구 서리풀도시자연공원구역, 서초구 말죽거리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총 4개소로,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 조성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였으며, 사업비는 9억 원이다.

**※ 2023년 도시자연공원구역 꽃길 조성 사업개요**

- 위 치 :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 공원구역
- 규모/사업비 : 26,100㎡ / 9억원
- 사업기간 : 2023. 1. ~ 2023. 11.
- 세부내역

연번	대상지	규모(㎡)	사업비(백만원)	사업내용
합 계		26,100	900	
1	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	10,935	270	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, 계절별 꽃 식재 시민 여가공간 조성 등
2	초안산도시자연공원구역	4,610	200	
3	서리풀도시자연공원구역	4,322	200	
4	말죽거리도시자연공원구역	6,233	230	

-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원을 연결하고, 시민들이 숲·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.
- 아울러, 시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숲속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공원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, 기존 공원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.
- 유명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지속적인 협의매수 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‘정원도시, 서울’을 완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및 꽃길 조성 대상지 현황사진 1부.  
2. 2022년 협의매수 대상지 현황 1부.





협의매수 등산로(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-서울둘레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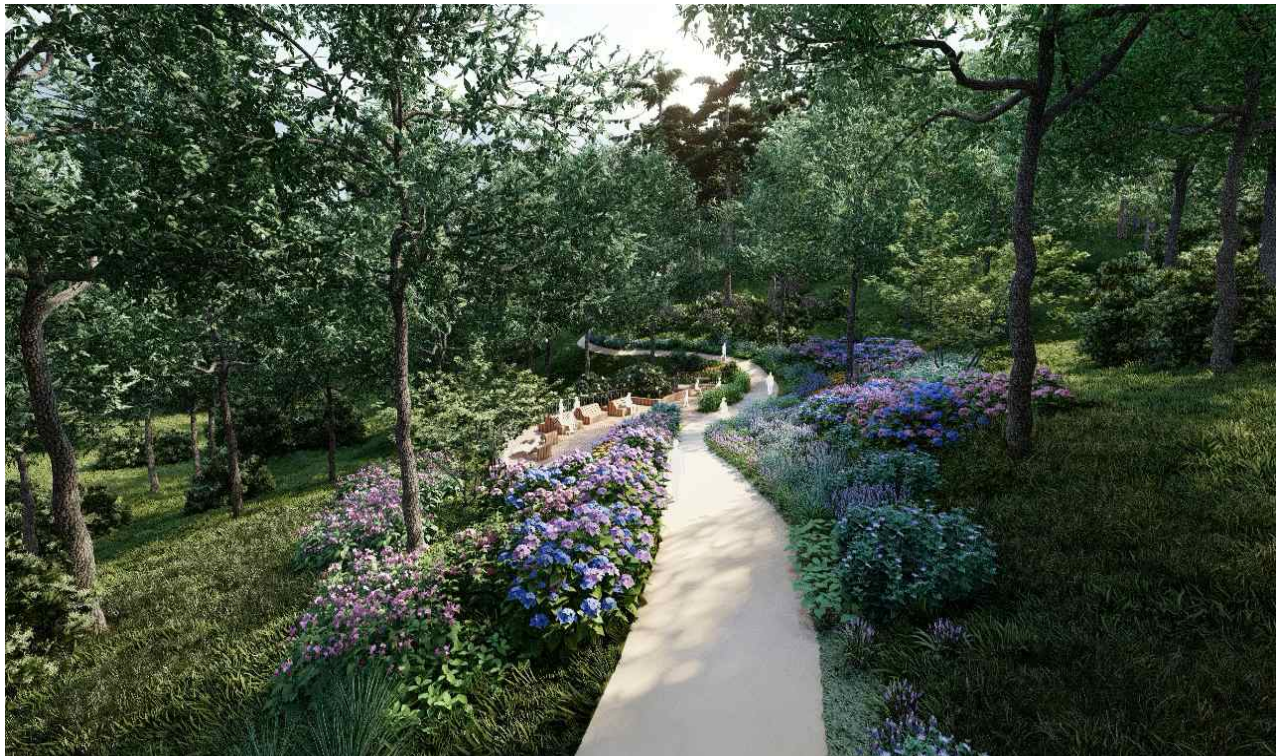


협의매수 등산로(도곡 도시자연공원구역)





협의매수 완료 등산로(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)



꽃길 조성 계획안(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)